

육상 김, 글로벌 식품허브 선발대로 ‘출발’

새만금개발청, 풀무원과 육상 김 양식 관련 국제 협력 방안 협의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지난 28일 풀무원 수석 본사를 방문하여 스위스, 네덜란드 등의 국제 식품 관련 기관들과 육상 김 양식 사업의 성공 및 활성화를 위한 글로벌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풀무원은 작년 7월부터 새만금 수산 식품 수출 가공 종합단지에서 ‘육상 김 알앤디(R&D) 센터(2,800여 평, 60억 원)’ 구축을 위한 입주 계약을 체결하고, 김 생산 연구와 가공·상품화를 준비하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글로벌 식품허브 추진을 위해 ‘새만금 글로벌 푸드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국제 푸드테크 기관들과의 협력체계를 마련 중이다. 이에 풀무원도 네트워크에 참여할 예정으로 이미 협업 중인 국제기관들과의 정보 공유 및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



특히, 해조류에 대한 연구와 사업이 주목받고 있는 유럽의 식품시장 현황에 맞춰 스위스 푸드엔뉴트리션 밸리(SFNV)와 함께 풀무원과 육상 김 양식 관련 협력 사업을 진행할 기업을 매칭 중이며, 스위스 푸드엔뉴트리션 밸리(SFNV) 정기 교류행사(5월 중)에 풀무원도 참여하여 육상 김 양식 사업에 대한 비전을 소개하고 관심 기관들과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새만금에 유치 중인 해양 양식 연구 사업과 풀무원의 육상 김 양식 간 유사성을 바탕으로 협력 연구의 가능성에 따라 네덜란드 와게닝겐대(WUR) 등과의 공동 연구도 검토 중이다.

새만금개발청은 풀무원이 추진 중인 육상 김 양식 사업이 새만금 글로벌 식품허브 성공을 위한 중요한 선발대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

이에 따라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2월에는 지역기업인과 상생 협약을 주도한 바 있으며, 오는 5월 16일 개최 예정인 ‘한국-네덜란드 새만금 국제 협력 세미나’에도 풀무원의 육상 김 양식 사업을 발제하여 홍보할 계획이다.

유지원 새만금 메가시티 추진단장은 “육상 김 양식을 선도해 나가는 풀무원의 기술과 경험, 새만금개발청

의 전폭적인 지원이 합쳐진다면 글로벌 김 시장의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될 것”이라며 “새만금 육상 김이 글로벌 식품허브의 첫 번째 시그니처가 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풀무원은 ‘바이오리액터’라고 불리는 큰 수조에서 김을 재배하는 ‘육상 김 양식 기술’을 2021년부터 연구 개발하고 있으며, 기존 해상 양식과 달리 육상에서 김을 양식하면 기후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고 연중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하다.

풀무원은 이 분야의 선도자로 이미 3건의 특허를 출원하였고, 작년 육상 김 양식으로 물김 생산에 성공하여 비건 인증 레스토랑인 ‘플랜류드’를 선보이기도 했으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와 상생협력을 통한 육상 김 양식 기술의 국내 및 글로벌 확산을 주도해 나갈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은 지난 28일 전북은행 본점에서 2025년 전북은행 대학생 서포터즈 5기 ‘동행의 시작’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전북은행, ‘동행의 시작’ 진행

‘2025년 전북은행 대학생 서포터즈 5기’ 임명장 수여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은 지난 28일 전북은행 본점에서 2025년 전북은행 대학생 서포터즈 5기 ‘동행의 시작’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동행의 시작’에는 백종일 은행장을 포함한 전북은행 임직원과 최종 선발된 25명의 서포터즈 5기 학생 등이 참석했으며, 환영 세레모니 및 임명장 수여 등 5기의 시작을 축하하는 프로그램들로 진행됐다.

전북은행 대학생 서포터즈 5기는 4월부터 8월까지 약 5개월 동안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다양한 컨

텐츠를 직접 기획하고, 도내 대학교 캠퍼스 및 관광명소, SNS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전북은행 브랜드를 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새롭게 소중한 인연을 맺게 된 대학생 서포터즈들의 열정으로 전북도민과 YOUTH 고객의 눈높이로 함께 소통하는 홍보활동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며, “전북은행 대학생 서포터즈를 도내에서 전방 있는 대외 활동으로 성장시키는데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만호기자

전북개발공사, 산불 피해 복구 위해 500만원 기부

전북개발공사는 역대 최악의 대형 산불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의 지원과 신속한 복구를 위해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공사 ESG 경영전략의 일환으로 대한적십자사에 500만원을 기부했다고 31일 밝혔다.

갑작스러운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루어졌으며, 기부금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생필품 담요, 응급세트 등 긴급구호품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전북개발공사 관계자는 “광범위한 산불 피해로 인해 지금 이 시간에도 산불 진화를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분들과 터전을 잃은 이재민분들의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과 최전선에서 구호 활동을 펼치는 인력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북개발공사는 도민과 함께 재난 및 재해극복 어려움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전했다.

/이만호 기자

전주상의, 제2회 전북 기업사랑 사진 동영상 공모전

전북기업 인식제고 활력증진 노사화합 분위기 조성 기대

전주상공회의소(회장 김정태)가 도내에 소재한 기업에 대한 사랑과 노사가 상생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자 지난해에 이어 제2회 전북 기업사랑 사진 동영상 공모전을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공모전은 기업 현장에서 일하는 기업인의 열정과 도전정신을 담아낸 작품, 직장 주변 나만의 휴식 또는 힐링 명소, 직장에서 따뜻한 동료애를 나누거나 동아리 활동 모습 등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담으면 된다.

공모전은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시상내역은 대상 1점(200만원), 최우수상 1점(100만원) 그 밖에 우수상 3점, 입선 30점 등 다수의 작품을 선정할 계획이며 수상작은 전주상의 비즈니스라운지에 전시할 예정이다.

응모자는 공모전 홈페이지나 이메일을 통해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운영사무국(063-280-1155)에 문의하면 된다.

전주상의 김정태 회장은 “사진 동영상 공모전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내 기업환경 개선과 노사화합 분위기 제고로 기업 이미지를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면서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새만금개발공사, 하도급 체불 방지 클린페이 도입 업무협약

새만금개발공사(이하 공사) 사장 나경준(가)가 지난 28일 ‘체불방지를 위한 차세대 대금지급 시스템(이하 클린페이)’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하는 클린페이는 체불방지 전용 자금관리시스템으로 임금 및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 지급을 보장함으로써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돕는 시스템이다.

공사계약 체결 시 공사대금 채권 신탁을 통해 가압류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건설 근로자의 임금과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을 보장할 수 있게 된다.



공사는 클린페이 시스템 도입을 통해 임금 및 대금 체불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보다 투명한 자금 집행 프로세스를 구축함으로써 모범적인 선도적인 공공기관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예정이다.

이날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김주호

이사(기획본부장)는 “이번 클린페이 도입으로 새만금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 등을 보호하는 물론 체불시 예상되는 행정업무 증가와 공정지연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 신속한 사업 진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최근 건설업계의 자금경색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만금 개발사업 참여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같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계약상대방의 자금난 해소를 위하여 대금은 청구 시 3일 이내 현금 지급, 선금은 요청 시 법정 최대치를 지급하고 있으며, 계약 체결 및 과입 수행과정에서의 불편사항 등을 준공 시마다 청취하는 등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만호 기자

전북농협, 부안중앙농협에 재해구호기금 전달

전북농협(본부장 이정환)은 지난 28일 ‘협동조합 간 협동 상생의 가치 실현을 통한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 구현을 위해 농협 시설물 화재피해를 입은 부안중앙농협에 재해복구 성금을 전달했다.

전북 부안군에 소재한 부안중앙농협은 내부 누전으로 인한 화재로 양곡창고 1개동 및 농기계센터 1개동이 전소되었으며 보관 중이던 양곡(350t)이 불에 타는 피해가 있었다.

이번 전달되는 ‘전북재해구호기금’

은 관내 전 농축협이 한 마음으로 조성하여 회원의 각종 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번 성금은 김원철 농협중앙회 수석이사, 이정환 전북본부장이 함께 전달했으며 재해복구에 지원될 예정이다.

이정환 전북본부장은 “전북의 모든 농축협이 참여한 이번 성금이 부안중앙농협의 피해복구에 힘을 보태고 임직원에게 희망의 불씨가 되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만호기자

국민연금공단, 영남 산불 피해 성금 2000만원 전달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과 국민연금나눔재단(이사장 강홍구)은 최근 산불 피해 관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영남지역의 피해지역 복구 및 이재민 지원을 위해 성금 2,000만원을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이번 구호성금은 산불 피해지역 복구와 산불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의 생필품 지원에 사용될 예정

이다.

김태현 이사장은 “산불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이재민의 피해복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갑작스러운 대형 산불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고 힘들어하는 이재민분들이 하루빨리 일상에 회복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김옥기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